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 河西道學과文學

Nice to meet samyang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차별화된  
약물 전달 기술의 첨단 신약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 제39호 목차 —

해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	2
선의 근원, 본성 파악을 위한 천명 연구 .....	4
윤사순(고려대 교수)	
필암에는 용비봉무(龍飛鳳舞)가 있다네 .....	9
전현천(서원순례길)	
하서와 채증길의 교우 양상.....	10
김동해(전 서영대 교수)	
간디와 인촌 김성수 .....	24
신광조(인촌사랑방 대표)	
필암서원 산양회 소식 .....	28

입회비는 3만 원, 연회비는 5만 원.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51-1175-2599-63)

社團法人 筆巖書院 山仰會

(57223)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전화 061-394-0833 발행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해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이 글은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사상天命思想과 하늘을 섬기는 사천사상事天思想과 장재의 서명西銘 사상이 참으로 잘 응축되어 있는 글이다. 천명과 중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천명사상과 사천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성, 즉 본바탕으로 돌아가자고 노래한 복성부復性賦가 잘 함축되어 있는 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을 수 있도록 빌려와 본보에 싣는다.

- 편집자 김재수 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있다. 햇볕과 물과 공기다.

햇볕과 물과 공기는 모양이나 질량은 다르지만, 그 속성은 비슷하다. 햇볕과 물과 공기는 틈새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 햇볕은 따뜻함과 사랑의 대명사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춘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 나무나 풀, 동물은 햇볕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세균도 살아남지 못한다.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다. 햇볕에는 5분을 견디지 못한다.

물은 겸손함의 대명사다. 낮은 곳으로만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그리고 마침내 대해大海에 이른다.

동양의 성자라고 일컫는 노자는 “최고의 선물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뜻의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남겼다.

물은 자기가 없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진 그릇에 담기면 네모진 모습이 된다. 그러나 고유의 성질이나 본바탕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물은 평소에 잔잔하고 수평을 유지하지만 한 번 일어서서 움직이면 당해낼 장사가 없다. 흐르는 물은 선후先後를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수부쟁先流水不爭先이다. 어짐과 겸허함과 대도大道의 극치다.

공기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지금, 이 순간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다. 눈은 잠시 감고 있어도 되고, 귀도 잠시 닫고 있어도 되고, 입도 잠시 닫아도 되지만, 하루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코로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거의 죽거나 실신失神한다.

공기는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햇별은 지하 깊은 곳에 못 들어가고, 물도 높은 곳에 못 올라가지만, 공기는 어디든지 간다. 못 가는 곳이 없다.

아무리 촘촘하게 짜 놓은 그물이라도 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

명상冥想에서의 최고의 경지가 ‘자유함’인데 그 경지를 이르는 말이 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21세기는 빛과 바람의 시대이다. 빛은 사랑이고 바람은 기氣다. 지금 우주의 기운이 달라지고 있다. 기氣를 잘 다스려야 한다.

코로나도 공기를 타고 전염된다.

병病은 좋지 않은 기운, 즉 사기邪氣가 체내에 침범한 것이다. 사기가 마음에 침범하면 사람이 사악邪惡해지고 몸에 침범

하면 병이 생긴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른 기운氣運, 즉 정기正氣를 지니는 것이다.

바른 음식을 바르게 먹는 일이다. 그래서 배움이나 수양修養이 필요하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분별심이 없고 이기적이며 다분히 폭력적이다.

진영논리가 판치고 있다. 인내심, 배려, 이해, 존중심이 부족하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한 번 잡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는 듯하다.

마음이 오염되니 말이 오염되고, 말 같지 않은 말이 횡행하니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햇별과 물과 공기의 속성을 닮아야 한다.

이제 심정과 사랑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 바람은 신바람이다. 우리 이제 본향本郷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신바람神風이 불게 하자.

- <잠시 머무는 쉼터> 중에서

# 선의 근원, 본성 파악을 위한 천명 연구

윤사순(고려대 교수)

심의 정과 동을 체와 용이라 하고 그 둘을 성性和 정情으로 논한 이론을 다시 정리하련다. 성은 정으로 드러날 일종의 가능성 또는 원인에 해당하고, 정은 그 가능성의 구현 또는 결과에 해당한다. 이 두 관계를 <중용>에서 ‘미발未發’, ‘이발已發’로 나타냈음은 잘 알려진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그 예에 따라 성과 정의 관계를 ‘발發’로 표현해, 앞서 본 대로 ‘성발위정性發爲情’ 또는 ‘정성소발情性所發’이라고 했다. 따라서 권근이 사단에 대해서만 ‘성이 발한 것’ 곧 ‘성발性發’이라 하고 칠정에는 성발을 적용치 않음은 여전히 문제다. 특히 칠정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음은 그 이유가 비록 칠정의 경우 부중절한 때가 있어서라 하더라도, ‘성발위정’의 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유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일찍이 맹자는 인간에게 육체肉體로 말미암아 ‘먹고 번식하려는 식색食色 성’이 있지만, 이런 성은 인간을 새나 짐승과 같은 “다른 동물과 구별시키는 성이 아니

라”는 점에서, 인간의 성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인간의 성은 오직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인간 고유의 마음에 근본한 성” 곧 이심根於心, 곧 인의예지仁義禮智에만 한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성리학에 이르러 먹고 번식하는 ‘식색의 성’도 인간이 지닌 성임에 틀림없으므로, 이를 기질로 말미암은 성이라는 의미의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했다. 사단과 관련된 인의예지의 성은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 유학에 도덕적 가치인 ‘선善’을 이해하는 방식이 본성(본연의 성)과 ‘중절’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 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공자, 맹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창의적으로 그것을 정리한 <중용>에는 (특히 맹자의 사상과 일치하게) ‘선한 본성’이 태생적으로 본구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일컫는다.”  
天命之謂性.

하늘이 명의 형식으로 준 ‘성性’이 심의 미발일 때靜의 ‘선한 성’, 곧 ‘본연지성’이고, 또한 사단의 ‘사덕四德’ 또는 ‘오상五常’이라고 꼽히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선 자체’다.

아울러 <중용>의 저자는 칠정에 해당하는 희로애락 등의 정이 선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미발을 중中이라 일컫는다. 발해서 다 절도節度에 맞은 것(중절中節을 화和라 한다. 중은 천하의 큰 근본(대본)이고 화는 천하의 달도達道다”

여기 ‘절도에 맞은 것’ 중절中節로서 ‘화和 또는 달도達道’라고 불리는 것이 또한 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선은 물론 본구된 성의 발로(단서의 정)가 아니고, 정의 작동이 절도라는 객관적 규범의 조건에 들어맞음으로써 이룬 선이다. 이처럼 ‘선에 대한 두 가지 이해 방식’이 본원 유학에 있었기 때문에, 권근의 위와 같은 설명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 성리학자인 그로서는 맹자와 <중용>의 본지에 따라, 사단은 본연지성인 만큼 거기에 ‘성발’을 적용하고, 칠정은 기질지성에 해당하므로 성발을 적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16세기에 이르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권근의 태도를 따르는 학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그의 후학들은 이제 선의

두 가지 실현 방식과 이에 관련되는 일체를 종합해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화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정도전과 권근의 시기보다 성리학이 더 복잡해짐을 보게 된다. 16세기 성리학자들은 먼저 사단과 칠정,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 성과 리, 천명과 태극, 기 곧 음양오행, 천地인사 등의 총체적 상호 관련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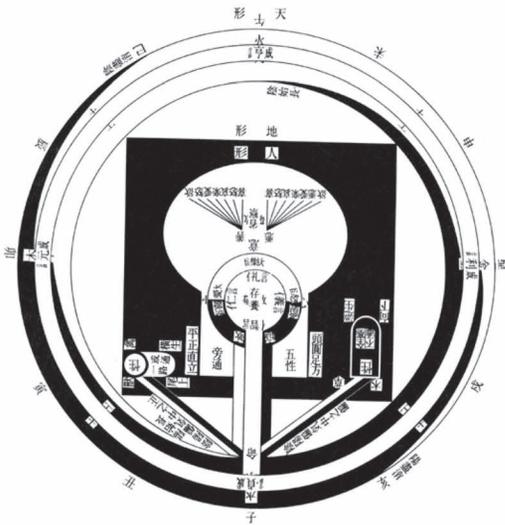
16세기 정주성리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는 대체로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1509~1561),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1527~1572) 등이다. 이들은 다 ‘천명天命에 대한 연구에 열중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다 <천명도天命圖>를 그렸는데, 정지운은 그것에 대한 해설서인 <천명도해天命圖解>를 지었고, 이황도 같은 종류의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지었다. 바로 이러한 연구로 말미암아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도덕철학의 또 다른 단계의 ‘독특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다.

천명天命에 대한 성리학적 연구, 특히 ‘천명에 대한 도해식 연구’에 그 시대의 대표적 학자들이 관심을 집중한 현상 자체가 다른 나라의 성리학계에서 볼 수 없는 특수현상이다. 그 특수 연구에서 독특한 이론들이 창발적으로 산출되었음은 필연적 결과다. 조선 성리학의 특징 또 하나

가 여기에도 있음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

〈천명도〉와 그 해설서 제작(〈천명도해〉)은 정지운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의 〈천명도〉를 표본으로 주요한 특징만을 소개하겠다.

정지운의 천명도



정지운은 “하늘은 둥글고天圓, 땅은 모나다地方”는 (그 시대 성리학자들의 공통된) 믿음에 따라, 천의 모양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땅의 모양인 검은 네모를 그렸다. 그 땅 안에, 윗부분은 둥글고 아래는 절반의 모난 모양의 사람을 그렸다.

사람의 이 모양은 위 절반이 하늘 모양이고 아래 절반이 땅 모양에 해당된다. 사람 모양의 양측에 “곧고 바르게 서다正直立”, “머리가 둥글고 발바닥이 모나다頭圓足方”라는 글을 썼다. 사람의 그림과 글

은 곧 사람이 〈주역〉 이래 하늘乾과 땅坤의 소생이라는 관념과, 동식물의 ‘가로 삶橫生’과 ‘뿌리내려 삶逆生’의 모양에 비유한 설명이다. 곧바로 선 형상이나, 사람을 ‘하늘과 땅의 합성’으로 모양 지은 것은 하늘과 땅의 자녀인 ‘인간’을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장靈長’으로 믿은 신념의 표출이다.

하늘의 동그라미 안에 음양陰陽의 기氣가 붙여 그려지고, 바로 그 기 안으로 (붙여서) 리가 그려지고, 그 안에 다시 음양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하늘 아래 기가 들어차고, 그 기 안에 리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하늘의 영역天圈 밖에는 12간지干支를 적었다. 리와 기陰陽의 자리에 원형이 정元亨利貞의 천도天道(四德)가 수화목금水火木金과 더불어 (천도인) 성誠의 갈라진 글자破字 안에 함께 있다. 어디에나 다 배속되는 토土는 그 네 기의 중간 자리에 두었다. 특히 ‘천도’를 하늘 영역에 적은 것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역(그림) 한가운데에 음과 양(기)으로 동그라미를 해서 마음心을 나타냈다. 마음의 둘레인 음양의 동그라미 사방에 갈라진 ‘욕欲’자들과 그 안에 희, 노, 애, 락을 함께 써 넣었다. 마음 한가운데에 갈라진 ‘경敬’자와 ‘존양存養’을 쓰고, 사방으로 네 개의 갈라진 ‘신信’자 안에 각각 ‘인’, ‘의’, ‘예’, ‘지’를 썼다. 마음속中에는 오성(오상)이 있고, 칠정의 욕

또한 마음에 있다. 이는 그의 앞 설명으로 밝혀진 모양의 그림이다.

본성의 측면으로, 정지운은 인간의 경우 “오성을 다 갖추” 오성방통五性旁通이라는 풀이를 (마음 그림 밖에) 적고, 새와 짐승에는 ‘성’을 “조금 통함或通”이라 했으며 식물에는 성의 “전혀 막힘全塞不通”이라 했다. 이러한 그의 기록은 인의예지-오성의 선형적 구비로써 그가 인간의 ‘영장됨’에 대한 증거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그에게 있어 오성의 구비는 이토록 중요성을 지닌 것이다. 모든 것을 도덕의 시각에서 평가하려 할 때 특히 그러하다.

주제인 ‘천명’은 바로 이 ‘성’과 관련된다. 천명을 의미하는 ‘명命’자는 그의, <천명도>에서 간지로 자子, 오행으로 수, 천도로 정貞의 방향(천의 맨 아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길게 식물과 금수, 그리고 인간에 다 통하는 길이로 그려졌다. 인간의 경우 그 ‘명’은 ‘오성’에 쓰인 마음속으로 연결된 통로에 있다. 이 형식은 ‘천명’이 오성과 직통함으로써 인간에서 그것(천명)이 ‘오성의 본구를 보증함’을 나타낸다. 이로써 <천명도>를 제작하는 목적이 오성의 선천적 본구를 깨달아 그에 의한 도덕 행위를 함으로써 영장靈長의 값을 인간들에게 하도록 하려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악善惡’은 그것들이 마음의 움직임에서 생기므로, 마음 그림 밖 ‘의意’ 자 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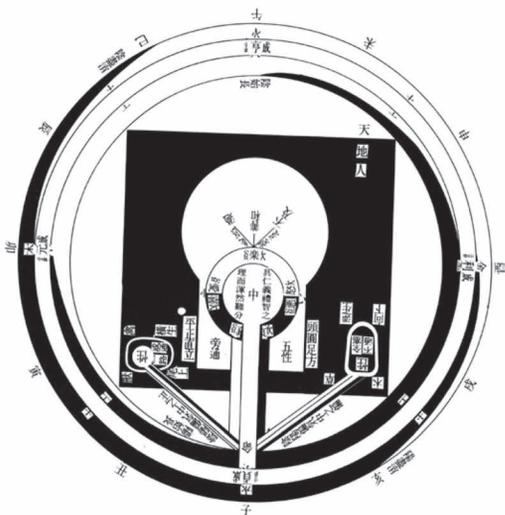
그 두 글자를 써 놓았다. 그는 ‘선’자와 ‘악’자 둘에 다 ‘칠정’을 연결시키고서, 그 두 갈래의 가운데에 ‘갈라진 경畧’자를 또 놓고 거기에 ‘성찰省察’을 써 넣었다. 이는 선행을 하는 데 경의 마음가짐 또는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아차리도록 한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하나의 의문이 인다. 권근이 칠정과 구분해 다른 곳에 써 놓았던 ‘사단’의 정들이 정지운 <천명도>에서는 오성만 보일 뿐 명시되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이 의문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떠올린다. 정지운에게 <천명도>가 이것 하나만 아니고 더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외에 이황이 전하는 정지운의 <천명구도天命舊圖>가 있고, 정지운이 이황과 함께 개정한 <천명신도天命新圖>가 있다. 그의 <천명구도>에는 ‘사단을 칠정과 함께 언급한 글’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천명도>는 아마도 그의 최초의 미정도未定圖인 것 같다.

사단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는 정지운의 이것 외에 ‘김인후의 <천명도>’도 있다.

김인후의 <천명도>는 매우 독특해서, 마음 한가운데에 ‘중中’자를 크게 써 놓고 그 글자 좌우에 “인의예지의 리를 먼저대로 갖추었지만 이것들이 혼연해서 나누기가 어렵다具仁義禮智之理而渾然難分”라고 적었을 따름이다. 마음의 둘레는 음양으로 나타내고 갈라진 ‘욕欲’자 안에 ‘희로애락’

김인후의 천명도



을 각각 써 넣었다.

김인후는 사단칠정을 정지운이나 이황과 달리 따로 문자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는 선악 자체를 독특하게 나타냈다. 곧 마음 영역 밖에 기미의 ‘기幾’ 자를 갈라서 마음 금에 붙여 놓고, 똑바로 나간 줄에 ‘선善’ 자를 ‘화和’ 자와 한자리에 썼다. 그 옆 좌우로 빗나간 줄에 ‘악惡’ 자를 갈라지게 하고, 각 끝에 ‘지나침過’과 ‘모자람不及’으로 나타냈다. 김인후의 이 선악 그림은 완전히 ‘정情’의 움직임의 ‘중절中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선악을 정의 중절 여부로 변별하는 그로서는 사단 칠정의 특별한 표시가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김인후는 그 자신의 <천명도>에서 사단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성까지도 하나씩 적어놓지 않은 채, 심의 작용인 정의 ‘실제적 중절 여부에 관심을 집중

시켰을 따름’이다. 이는 사단을 따로 중요시 하지 않은 그의 도덕설의 독특한 성향을 나타내는 점이다. 오성의 본구에 선행을 각별히 기대하는 이론이 ‘선험적 도덕설’이라면, 칠정의 사실적인 작용에서 중절이라는 선행을 기대한 그의 이론은 일종의 ‘경험적 도덕설’에 기운 경향일 것이다.

정의 중절 여부라는 마음의 실제적 운용에 치중한 성향으로 해서, 김인후는 사단 칠정에 대비해 리와 기로 각각 해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천명도>에는 사단 칠정에 대한 리기 해석(발의 해석)이 들어 있지 않다. 그가 정지운, 이황과 더불어 그 시대의 관심사인 <천명도> 제작에 참여했음에도, 사단 칠정에 대한 리기 해석의 맥락에서 그의 설이 이후 학계에서 논의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마도 김인후의 <천명도>에 비친 사유 경향이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았더라면, 이후 조선 성리학자들의 도덕설은 이황의 사단 칠정 해석보다 훨씬 더 마음의 실제적 운용을 강조하는 경험론적 색채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향은 ‘후기 탈 성리학적 실학實學의 발흥’을 기다려야 크게 힘을 얻는다.

김인후의 사유 경향이 권근으로부터 이어 온 전통과 다른 것임은 더할 나위 없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 시대 학계의 흐름은 권근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때

정지운과 이황이 <천명도>의 해석에 보인 사단 칠정에 대한 리와 기의 해석이 형성하는 흐름이었다. 16세기 이후 성리학계는 사단 칠정과 구분해서, 각각 리기로 해석하는 정에 대한 도식적 이해 및 오성의

본구를 앞세운 선협적 도덕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 윤사순 저 『조선, 도덕(道德)의 성찰-조선 시대 유학의 도덕철학』 78~86쪽에서 가져옴

### 필암에는 용비봉무龍飛鳳舞가 있다네

전현천(서원순례길)

확연루에 황금노을이 내려오자  
 서쪽하늘을 향해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날아오를 태세를 갖추자 봉황이 춤을  
 추고,  
 일출이 솟아오르자 동쪽하늘로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날아오를 태세를  
 갖추자  
 역시 봉황이 춤을 춘다.  
 확연루에서는 황룡이 노을을 부르고,  
 황룡이 일출을 밝히고 있다.  
 또 개기월식만 보았던가?  
 확연루에서는 송주월식松柱月蝕을 볼 수  
 있다네!  
 어제 달은 우측상단이 약간 일그러졌지  
 만,

태극의 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뜰 소나무 사이로 솟아오르더니  
 점점 소나무 기둥 뒤로 숨어들어가고  
 있는  
 광경이 꼭 월식과 같았다.  
 그래서 송주월식이라 억지 지었다.  
 확연루 뜰에는 만상이 구비되어  
 자연스레 천지와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  
 고 있으니  
 이것이 성현이 주장한 확연대공廓然大空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廓然樓 四龍  
 靑龍西飛 黃龍東飛  
 龍飛鳳舞 松柱月蝕  
 巖日光輝 廓然大空

# 하서와 채중길의 교우 양상

김동하(전 서영대 교수)

## 1. 서언

인간은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어쩌면 인생이란 자체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서 선생은 뛰어난 학자이기에 앞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온유하고 관대한 인물이었다. 하서의 고고한 삶을 되새겨볼 때, 선생의 뛰어난 학문과 탁월한 인품으로 인한 다양한 교우 범위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

다. 특히 하서가 해동의 염계濂溪이자 호남의 공자로 추앙되는 인물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는 1,600여 수에 달하는 한시 작품의 대다수가 270여 명에 달하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과의 인간적 교유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하서와 교유한 인물 가운데는 동문수학한 친구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놀재 박상<sup>1)</sup>의 문하생인 임형수를 비롯하여, 신재 최산두<sup>2)</sup> 문하의 인물들이 가장 관심

1) 朴祥(1474-153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忠州이며, 자는 昌世, 諡齋이다. 1496년(연산군 2) 진사가 되고, 1501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校書館正字로 보임을 받고, 박사를 역임했다. 承文院校檢, 侍講院司書, 병조좌랑을 지내고, 1505년 외직으로 전라도사를 지냈다. 1506년 중종 초 사간원헌납으로 종친들의 중용을 반대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하옥됐으나, 태학생과 宰臣들의 상소로 풀려났다. 1년 간의 논쟁으로 銓官에게 미움을 사서 한산군수로 좌천되었다. 1511년(중종 6) 수찬, 응교를 거쳐 담양부사로 나아갔다. 1515년 순창군수 金淨과 함께 상소하여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端敬王后 愼氏의 복위를 주장했다. 또한 박원종 등 3훈신이 임금을 협박하여 국모를 내쫓은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다가 중종의 노여움을 사서 오림역으로 유배되었다. 1516년 방면되어, 의부도사, 장악첨정을 역임했다. 이듬해 순천부사가 되었으나 그해 겨울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했다. 1519년 선공감정, 1521년 상주와 충주의 목사를 지내고, 만기가 되자 사도시부정이 되었다. 1526년 문과중시에 장원했으나, 이듬해 나주목사로 좌천되었다. 1529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청백리에 뽑혔다. 저서로는 『놀재집』이 있다. 월봉서원에 제향되었으며, 1688년(숙종 14)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文簡이다.

2) 崔山斗(1483-1536)의 본관은 光陽, 자는 景仰, 호는 新齋, 籠中子, 蘿菴山人이다. 김종직과 김굉필을 사

을 끈다. 채중길과 윤사울은 하서가 미암 유희춘과 함께 신재에게 수학한 문하생인 관계로 평생을 두고 남다른 우정을 유지했다. 하서와 미암은 동문수학한 단계를 넘어 사돈 관계까지 발전할 정도로 남다른 우의를 드러냈다.

그러나 유독 윤사울과 채중길만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명확히 알 길이 없다. 윤사울은 29세라는 나이로 요절했기 때문<sup>3)</sup> 그렇다 해도, 채중길에 관한 기록이나 문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의외이다. 최근 채중길에 대한 김재수 교수의 끈질긴 조사와 연구로 일부나마 밝혀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채중길에게 보낸 하서의 시와 채씨 문중 족보 등을 근거로, 채중길의 생애와 수학 과정, 그리고 하서와의 교유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 2. 채중길의 생애와 학문

### 1) 채중길의 생애

채중길은 한마디로 신비로운 인물이다. 채중길 생애에 대해서는 개인 문집이 남아 있지 않고, 그와 관련된 인물의 문집이나 어떤 공식적인 문헌에도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다. 『하서집』에는 채중길과 관계된 작품이 7편 전하는데<sup>4)</sup>, 그것조차 하서가 그의 시운에 따라 지은 작품이나 그와의 우정을 드러낸 것이어서 그의 삶의 자취를 파악할 길이 없다.

하서가 <기증채상사중길寄贈蔡上舍仲吉>이란 작품에서, 채중길을 ‘상사上舍’<sup>5)</sup>로 호칭한 것을 보면, 진사에 합격한 것은 분명한데, 이후의 관직이나 활동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가 대과에는 급제하지 못했거나,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의 관계 진출을 포기한 것

---

속하였다. 18세에 상경하여 조광조, 김정, 김안국 등과 교유하니 당시 사람들이 ‘洛中君子’라 했다. 1519년(중종14) 이조정랑, 장령, 사인으로 승진되었으나 기묘사화로 동복에 유배되었다가 1533년 풀려나온 뒤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문장에 뛰어나 해남의 橋亭 尹衢와 懶齋 柳成春과 더불어 ‘湖南三傑斗衢春’이라 일컬었다. 동복의 道源書院에 제향되었다. 試場에서 지은 <通鑑賦>는 豪放하고 動盪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 3) 하서는 윤사울과의 우정이 남달랐다. 하서는 윤사울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의 정을 담은 「祭尹士栗」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挽尹士栗」을 지었다. 한 사람에 대한 挽詩를 네 수나 지었다는 것은 하서가 윤사울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다.
- 4) 『河西集』에는 채중길과 관련된 작품으로 <寄贈蔡上舍仲吉>, <仲吉求詩>, <八日, 士栗得柳氏離騷於仲吉處示余, 余悲其遭患, 哀而爲之詩>, <次蔡仲吉聞鷄詩韻>, <蔡仲吉求見吾詩集, 摘寫日錄中所付若干首, 題詩其上>, <懷仲吉>, <棲山寺寄仲吉> 등 7편이 전한다. 서산사는 개성 성거산에 있는 절로 서경덕이 거주했다.
- 5) 조선시대 小科인 生員進士試에 합격한 사람.

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앙 무대에서 특별한 관직을 지니거나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지 않아,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채중길은 본관이 인천으로, 본명은 무회(無悔)이며 자는 중길(仲吉)이다. 증조부 신보(申保)의 세 아들 중 둘째인 연(年)이 조부이다. 연의 네 아들인 준(濬), 해(海), 하(河), 낙(洛) 중 셋째인 하(河)가 부친이다. 부친인 하(河)의 다섯 아들인 무민(無閔), 무위(無違), 무내(無奈), 무필(無必), 무회(無悔) 중 막내인 무회(無悔)가 바로 중길이다.<sup>6)</sup> 조정에서 요직을 수행한 채소권(蔡紹權)<sup>7)</sup>이 중길의 당숙이다. 채중길이 놀재의 제자가 된 것은 채소권

과 박상의 관계에서 비롯된다.<sup>8)</sup>

채소권은 당대에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탁월한 인품과 빼어난 학문을 지닌 박상을 존경한 나머지, 집안의 영재인 채중길을 박상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상의 문집인 『놀재집』에는 채소권과 관련된 작품인 <채효중과이차야복환갈미회중사귀양모(蔡孝仲過李次野飲僕患喝未會仲辭歸養母)>,<sup>9)</sup> <기채승지소권외구지정즉견(寄蔡承旨紹權外舅池亭即見)>,<sup>10)</sup> <기채승지소권김성장몽고성묘남래채공부서신고시이답지(寄蔡承旨紹權金成章蒙古省墓南來蔡公附書信故詩以答之)><sup>11)</sup> 등 3편이 실려 있다. 박상은 <寄蔡承旨紹權外舅池亭即見>에서, “언제

6) 無奈, 無必, 無悔는 모두 자손이 없다.

7) 蔡紹權(1480-1547)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仁川, 자는 孝仲, 호는 拙翁이다. 초명은 壽童이다. 蔡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남양부사 蔡申保이고, 아버지는 靖國功臣 지중추부사 蔡壽이며, 어머니는 권이순(權以順)의 딸이다. 1504년(연산군 10) 진사가 되고, 1506년 별시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1511년(중종 6) 정언이 되었다. 1520년 홍문관부응교와 장령을 거쳐 사간·사헌부집의, 홍문관 전한과 侍讀官, 동부승지가 되고, 1523년 좌부승지에서 승지가 되었다. 1524년(중종 19) 홍문관 부제학으로 時弊五條를 상소했다. 정령의 잦은 변경에 따른 폐단과 士族의 全家徙邊의 옳지 않음과 정신이 어둡고 쇠약하여 늙고 병든 자가 監, 寺에 尸位素餐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士氣의 추향이 날로 낮아져서 문예를 버리고 武擧에 나아가는 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鄉圃(鄉試의 試場)에서의 시험 부정의 속출을 지적했다. 1528년 청주목사가 되고, 1531년 경기도관찰사, 1533년 대사헌,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다음해 한성부좌윤, 형조참판이 되었으며, 1535년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金安老의 처남이나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김안로가 丁酉三兇으로 몰렸을 때도 홀로 큰 화를 입지 않았다. 저서로 『拙齋集』이 있다.

8) 채중길이란 인물에 대한 의문으로, 오랫동안 남다른 집념으로 연구를 계속해 온 김재수 교수에 의해 그의 가계와 가족 관계가 일부나마 밝혀지게 되었다. 채중길의 생애 부분은 김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데는 김 교수가 『산양회 회보』 제38호(2023. 3)에 게재된 「채중길은 누구인가」라는 논문이 큰 힘이 되었다.

9) 『訥齋集』 卷五, 律詩七言.

10) 『訥齋集』 續集 卷第一, 詩.

11) 『訥齋集』 續集 卷第一, 詩.

나 괴로운 것은 돌아갈 수레 채 빗장 뽑아 던지면, 사위는 그것을 깊숙이 감춰버린 것이라 每苦投歸轄, 乘延龍下禁中.”라고 했다. 집 주인인 장인과 사위인 채소권이 자신을 초대하여 번번이 못 돌아가게 만류했던 때를 회상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채중길의 생애에 대한 김 교수의 견해에 대해, 조선대 이종범 교수는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채중길은 본관이 고성固城으로, 본명은 연희延禧이며 자는 중길仲吉이고 호는 대산大山이다. 성종 때 종사랑從土郎을 지낸 아버지 채담蔡聃의 칠남 중 다섯째로<sup>12)</sup>, 1514년에 태어나 1588년(선조 21)에 세상을 떠났다. 박상에게 수학하여 1525년(중종 20) 을유 식년시式年試에 생원生員 3등으로 합격했으나, 남곤과의 불화로 인해 동복에 살게 되었다.<sup>13)</sup>라는 것이다.

채중길의 생애에 대한 두 교수의 주장은 나름대로 가능성과 개연성은 있으나, 어느 견해가 보다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기록과 문헌을 통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2) 최중길의 수학 과정

하서는 <기증채상사중길寄贈蔡上舍仲吉>

에서, “문장은 놀재에게 배워文從訥齋學”라고 했다. 그러면 채중길이 놀재에게 문장을 배운 시기가 언제일까 의문이 남는다. 김 교수는 채중길의 나이를 하서와 동년배로 보면, 1511년은 너무 어리므로, 1521-1524년 사이에 배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중길의 나이를 하서보다 5살 위로 잡아도 1511년은 6세밖에 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옛날 신재 선생 문하에 노닐 때昔遊新齋門”라고 했다. 최산두는 유배라는 불운을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하서와 같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는 행운을 지닌 인물이었다. 하서와 미암, 채중길과 윤사율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문하에 들어온 것이다.

미암이 신재의 문하에 들어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하서가 신재의 제문에서 “지난 날 약관 시절, 책 보따리 메고 가 스승께 뵈니”라고 한 것으로 보면 신재의 귀양살이 끝 무렵으로 추측된다. 하서와 미암이 동시에 함께 수학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더욱이 하서가 처음 신재를 찾아 한 열흘 머물면서 배운 뒤로 5년 지나서야 두 번째의 문학問學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들의 만남은 하서가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로서 스승을 찾아

12) 『平康蔡氏 大同譜(1991)』 권지일, 「목사공파(牧使公派)」에 나타난 계보는 다음과 같다.

10세 象文, →11세 紹, →12세 以靈, →13세→聃, 14세 延祚, 延祐, 延지, 延詳, 延禧, 延福.

13) 이종범, 「망각의 선비를 찾아서」-哀祭文의 전기문학적 성격.

간 종종 27년(1532, 23세)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서와 미암의 우정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서는 미암에 대해, “아름다운 미암 친구여, 어찌도 그림계 만드는가.”<sup>14)</sup>라고 했고, 미암은 하서에 대해, “북쪽에 문안할 사람 없어, 난 하서만 생각합니다.”<sup>15)</sup>라고 답할 정도였다. 두 사람의 우정은 급기야 사돈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미암과 하서가 신재에게 수학한 시기와, 하서가 채중길과 수학한 시기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서와 채중길은 신재 문하에서 자주 만났고, 둘의 만남에 이따금씩 윤사울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하서의 <기증채상사중길寄贈蔡上舍仲吉>에, “옛날 신재 선생 문하에 노닐 때, 상중이 그때만큼 잦은 적 없었네. 눈보라 치던 그 어느 해에, 고현에서 잠깐 서로 만났는데, 때마침 윤사울이 자리를 함께했네.”<sup>16)</sup>라고 했다. 그렇다면 채중길은 언제 신재

의 문하에 들어갔을까.

채중길이 하서와 거의 동년배였다고 가정하면, 채중길이 신재의 문하에서 수학한 기간은 놀재에게 문장을 배운 1524년 이후라 할 수 있다. 하서가 신재의 문하에 들어간 것이 1527년이니, 채중길이 신재 문하에서 수학한 시기는 1527년 전후 무렵으로 추정된다. 하서와 채중길의 만남은 신재 문하에 있을 때 빈번했으나, 이후 한동안 뜸했다가 눈보라 치던 어느 해에 다시 만났고, 때 마침 윤사울도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윤사울이 29세에 요절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하서와 채중길, 윤사울 등 세 사람의 만남은 적어도 1527년 이후에나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중길은 신재 문하의 인물인 하서와 미암, 윤사울 외에 많은 사람들과 교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승이었던 남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그의 백부인 채수蔡壽의 묘비를 써 주었다. 최산두는 학문적으로 김굉필金宏弼 계열로, 채중길은 박상 계열로 분류한다.<sup>17)</sup>

14) 『河書集』卷五, 〈奉和柳眉巖鍾山謫所〉“有美眉巖子, 胡然使我思, 何當公一榻, 開卷析毫釐.”

15) 『眉巖集』券二, 〈和金河西麟厚韻〉“塞北無人問, 河西獨我思, 新詩三百字, 遙寄話毫釐.”

16) 〈寄贈蔡上舍仲吉〉, “時同尹士栗, 昔遊新齋門, 相從蓋累累, 風雪是何年, 高軒暫相視, 時同尹士栗.”

17) 고영진은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혜안, 2007)에서 호남사림의 학맥을, 크게 崔溥, 金宏弼, 朴祥, 宋欽, 李恒, 崔山斗, 金安國을 대표로 하는 7계열로 나눈다. 崔溥 계열로는 尹孝貞, 林遇利, 柳桂麟에서 尹衢, 尹巷, 尹復, 崔春, 柳希春으로, 다시 李仲虎으로 이어진다. 金宏弼 계열로는 崔山斗, 柳桂麟, 尹信, 崔忠成, 柳孟權에서 金麟厚, 柳成春, 柳希春으로 이어진다. 朴祥 계열로 宋純, 林億齡, 鄭萬鍾, 蔡仲吉, 朴淳이 있으며, 宋欽 계열로 梁彭孫, 羅世纘, 宋純, 安處誠에서 梁應鼎, 金麟厚이, 李恒 계열로 金千鎰, 奇孝諫, 金齊閔, 白光弘이, 崔山斗 계열로 金麟厚, 柳希春이, 金安國 계열로 金麟厚과 柳希春이 있다.

### 3. 하서와 채증길의 교류

하서와 채증길은 신재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관계로 그 누구보다도 각별한 사이였다. 깊은 신의를 바탕으로 남다른 우정을 맺었다. 이러한 사실은 5언고시인 <기증채상사증길寄贈蔡上舍仲吉>에 잘 나타나 있다.

吾友蔡仲吉  
 내 친구 채증길은  
 諄諄古君子  
 충직한 옛날의 군자로  
 平生誦萬卷  
 평생 만 권의 책을 다 읽은  
 自是經綸士  
 진정한 경륜의 선비였네.  
 文從訥齋學  
 문장은 늘재에게 배워  
 換骨韓愈氏  
 한퇴지의 골수를 빼앗았네.  
 奮藻大學館  
 성균관에 들어가 글재주를 떨치니  
 南相眞知己  
 정승 남씨가 알아주었네.  
 爾後落魄甚  
 이후로 너무도 실의하여  
 悠悠將一紀  
 십여 년이 흘렀네.

卧病相識稀  
 병석에 누우니 친구조차 드무니  
 誰堪托生死  
 누구에게 생사를 의탁하리오.  
 伊余每自恨  
 내 스스로 언제나 한스러움은  
 生不接隣里  
 사는 곳이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不得日扣門  
 날마다 찾아가 문 두드리며  
 慇懃問居止  
 은근히 기거 안부 묻지 못하고  
 空將往來人  
 부질없이 오가는 인편 있으면  
 時時報雙鯉  
 때때로 편지 써서 보내곤 했네.  
 問訊雖綢繆  
 문답이야 아무리 잤다지만  
 別懷何時已  
 허전한 마음이야 늘 마찬가지.  
 女奴頃往還  
 지난번 계집종이 다녀왔을 때  
 聞言深惻耳  
 그대 말씀 듣고 몹시 슬펐네.  
 痛哭謝故人  
 통곡하며 그대를 하직하노니  
 此生知己矣  
 이 생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인 듯해  
 危辭百萬端  
 다급한 언사가 많고 많지만

大要不過是  
 큰 요점은 이에 불과했네.  
 因求訣別章  
 결별의 만장마져 청해왔지만  
 願我何忍此  
 내 차마 이 글을 짓는단 말인가  
 昔遊新齋門  
 옛날 신재 선생 문하에 노닐 때  
 相從蓋累累  
 상종이 그때만큼 잦은 적 없었네.  
 風雪是何年  
 눈보라 치던 그 어느 해에  
 高軒暫相視  
 고향에서 잠깐 서로 만났는데  
 時同尹士乘  
 때마침 윤사율이 자리를 함께하여  
 鼎坐談前史  
 셋이 앉아 옛 역사를 얘기했네.  
 于今已數載  
 이제 보니 벌써 몇 해라.  
 悵望隔山水  
 바라보면 산과 물만 가로막혔네.  
 推排聚勝前  
 취승정 앞에서 밀고 당기며  
 劇飲錦城裏  
 금성관 안에서 흠뻑 마시며  
 當時共行樂  
 행락을 함께하던 당시 일들이  
 思之猶宛爾  
 생각할수록 아직도 눈에 선하네.

崔尹既已世  
 신재, 윤사율이 이미 세상 떠났고  
 羅侯遭譴毀  
 나후는 훼방 입어 귀양 사는 몸  
 存亡一俯仰  
 살고 죽음은 천지 사이에 한순간이라  
 人事終何似  
 사람 일은 끝에 어찌 될는지  
 早晚倘相值  
 행여 조만간 서로 만나면  
 從容對筵几  
 조용히 책상머리 맞대고 앉아  
 崢嶸千古胸  
 천고의 쌓인 흥금 활짝 열고서  
 粲然一啓齒  
 한 번이나 밝은 웃음 웃어 봤으면  
 論今我踈迂  
 오늘을 논한다면 나 엉성하고  
 討舊君高峙  
 옛 것을 논한다면 그대 홀륭했네.  
 快若清風濯  
 바람에 씻은 듯 상쾌도 하고  
 豁如昏霧披  
 어둔 안개 걷힌 듯 활짝 트이네.  
 一念方寸間  
 한결같이 한 치 마음속에  
 懸懸豈嘗弛  
 맏히고 맏힌 그리움 어찌 풀어 버릴까  
 裁詩寓繾綣  
 시를 지어 절실한 뜻을 붙이고

繼以書滿紙

지면 가득 긴긴 편지이었으니

須君一過眼

그대 한 번 눈 돌려 읽어 준다면

然後吾以喜

나는 이로써 기쁨 따름.

위의 작품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처음부터 제 8구까지이다. 먼저 채중길에 대한 찬양으로 글을 시작한다. 채중길을 ‘오우우우友’라 칭하며, 충직한 옛날의 군자로, 평생 만 권의 책을 읽은 경륜의 선비로 칭송한다. 이어 박상에게 문장을 배워 한퇴지에 못잖은 능력으로 성균관에서 글재주를 떨쳤으며, 남곤이 알아주었다는 것이다. 제2구의 ‘순순諄諄’은 삼가고 성실한 모양을 말한다. 『맹자』, 『만장』에, “하늘이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차근차근 그에게 명령해 준 것이니까?” 아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고, 행위와 일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줄 뿐이다.”<sup>18)</sup>라고 했다.

둘째 단락은 제9구부터 28구까지이다. 정승인 남곤이 알아주었으나 나중에 실의하여, 십 년을 친구도 없이 지낸 데다 병까지 얻었음을 안타까워한다. 제9구의 ‘낙백落魄’은 뜻을 얻지 못하고 실의에 빠

져 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제15구의 ‘고문扣門’은 문을 두드린다는 말이다. 성간成侃(1427-1456)의 <아부행餓婦行>에,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니, 새카맣게 더럽혀진 굶주린 아낙네라.”<sup>19)</sup>라고 했다. 제18구의 ‘쌍리雙鯉’는 편지를 말한다. 잉어는 기러기와 함께 소식을 전하는 방편으로 여겨져 왔다. 고악부古樂府인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에, “손이 멀리 와서 네게 잉어 한 쌍을 주었네, 아이 불러 잉어 삶으라 했더니, 뱃속에서 척서가 나왔네.”<sup>20)</sup>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한나라 풍속에 편지를 보낼 때는 흰 비단에 적어 두 마리 물고기 모양으로 접어 보냈다 한다.

하서는 채중길이 친구 하나 없이 병석에서 생사를 오가는데도, 먼 곳에 있다 보니 자주 찾지 못했음을 자책한다. 편지로만 겨우 안부를 주고받아 왔는데,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전해 듣는다. 이내 갑자기 부음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다. 결별의 만장마저 쓸 수 없는 상태다. 하서의 비통함은 상상을 초월했으리라.

셋째 단락은 제 28구부터 마지막까지이다. 채중길과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추억한다. 두 사람 모두 신재 선생의 문하생

18) 『孟子』, 「萬章」上, “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 曰, “否. 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

19) 成侃, <餓婦行>, “俄有扣門聲, 餓婦面深黑.”

20) 古樂府, <飲馬長城窟行>,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童烹鯉魚, 中有尺素書.”

으로, 자주 상종한 사이임을 밝힌다. 이어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을 회상하며, 윤사울도 자리를 함께 했음을 말한다. 하서와 채중길, 윤사울의 관계가 지극했음을 알 수 있다. 세 사람이 옛 역사를 화제로 정겹게 이야기하고, 취송정과 금성관에서 행락을 함께하던 당시의 일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이제는 최산두, 윤사울 모두 세상을 떠났다. 더욱이 나세찬은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 있다. 존망은 한 순간으로,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천고에 쌓인 흥금을 열고, 한 번이라도 밝은 웃음을 웃어 보려 한다. 마음속에 맺힌 애뜻한 그리움을 풀어 보고자 종이 가득 편지를 쓴다. 채중길이 읽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병마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까닭이다. 모를 리 없기에 슬픔은 가중된다.

제 41구의 ‘견권繼繼’은 정이 깊어 헤어지기 어려움을 나타낸 말로, 마음속에 굳게 맺혀 잊히지 않는 정을 ‘견권지정繼繼之情’이라 한다. 제 43구의 ‘부앙俯仰’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세상을 굽어본다는 말이다. ‘일부앙一俯仰’은 주희의 <재거감흥이십수齋居感興二十首> 중 기일其一에, “삼황의 복희씨는 옛날 신묘한 성인이니, 한번 부앙하여 이치를 묘하게 계합하네.”<sup>21)</sup>라

고 했다.

채중길에 대한 하서의 우정은 남달랐다. 언제 어디서나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그와 함께했다.

榻上晨光暗

내 자리 앞에는 새벽빛이 어두운데,

山中一雨渾

산 속 한 차례 비에 날이 흐리네..

故人千里遠

벗은 천 리 머나먼 곳에 있으니

孤夢落溪村

외로운 꿈 산골 마을에 그치누나.

하서가 채중길을 회고한 5언절구인 <회중길懷仲吉>이다. 전형적인 전경후정前景後情의 작품이다. 기구와 승구는 새벽 무렵 비가 내리고 난 뒤의 산속 모습을 그린다. 기구의 탐상은 교의交椅나 臥床와상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두보는 <단청인증조패장군丹青引贈曹霸將軍>에서, “옥화총이 어느새 어탑 위에 있게 되니, 어탑 위와 뜰 앞에 우뚝 서서 서로 마주보고 있네.”<sup>22)</sup>라고 했다. ‘신광’은 동이 틀 무렵에 비치는 빛을 말한다. 전구와 결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벗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21) 朱熹, <齋居感興二十首> 其一, “皇犧古神聖, 妙契一俯仰.”

22) 杜甫, <丹青引贈曹霸將軍>, “玉花卻在御榻上, 榻上庭前屹相向.”

을 표현한다. 벗은 천 리 먼 곳에 있으니, 외로운 꿈만 일어나 산골 마을에 머물 뿐이다. 절구의 ‘고몽孤夢’은 정지상鄭知常의 <송인送人>에, “마음은 임 가신 산모퉁이에 가 있는데, 외로운 꿈 깨어보니 달만 밝구나.”<sup>23)</sup>라고 했다.

자리에 앉아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먼 곳에 있는 벗인 채중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을 드러낸다. 하서와 채중길은 단순히 왕래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를 넘어, 지은 시에 대해 차운하고 평가하며 심지어 작시까지 부탁할 정도로 막역했다. 채중길은 자신의 시를 여러 차례 하서에게 보내 평가를 받고자 했으며, 또한 하서에게 자신을 위해 시를 지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하서는 그의 시문을 보고 그의 학문과 문장이 뛰어남을 찬양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채중길이 하서에게 보낸 시는 한편도 전하지 않고, 하서가 그에게 준 시 7편만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昨見手書詩一通

어제 손수 지은 시 한 통을 보냈기에

跪而受之惕齋慄

무릎 꿇고 받으며 마음이 떨렸었네.

造次如逢仲吉面

잠깐 사이 중길을 만난 듯하여

展把孤燈慰寂寞

등불 아래 펴들고 적막을 달랬네.

瓊章繡句奪人目

금옥인 양 좋은 글귀 사람 눈을 빼앗아

眩轉茫迷始焉惑

정신이 오락가락 처음엔 현혹했네.

傾心致意久乃見

뜻과 마음 다 기울여 오래 뒤에 깨달아

口誦忽焉如有失

입으로 외워보니 갑자기 잃은 듯해

熊躡豹胎未以喻

웅변과 표태로도 비유하지 못할 텐데

不比吾家藜羹薄

우리 집 콩일 국과 감히 전줄 것인가.

若非前代聖賢文

저 옛날 성현들이 써 놓은 글들이

千編萬卷磊落載其腹

천 편 만 권 뱃속에 실려 있지 않으면

安能一一自己出

어찌 능히 하나하나 제 입으로부터 나와

汎濫發越至此而不覺

넘치고 넘어도 여기에 다시 깨우치지 못

하니

手披目觀豈敢暇

손으로 뒤적이고 눈으로 훑어보며 어찌

감히 틈을 주리

對此眞成榻穿膝

앉은榻에 구멍이 났네.

23) 鄭知常, <送人>, “片心山盡處 孤夢月明時.”

悲辭既令人肝摧  
 슬픈 말에는 내 간장이 꺾이더니  
 喜語還堪蹈舞樂  
 기쁜 말에는 춤추듯 즐겁네.  
 翻風激雨窳鯨鵬  
 회오리바람과 거센 비는 고래와 봉새를  
 모으고  
 鱗鬣撐披相倒側  
 비늘 지느러미 거꾸로 솟구치네.  
 韓竒杜硬遠追逐  
 한유의 기, 두보의 경이 멀리 서로 쫓으며  
 掉臂乾坤步可獨  
 어깨를 내두르며 천지를 독보하네.  
 千年匣中二龍劍  
 천 년 칼집 속에 두 용검이 들어 있어  
 半夜精光射天赤  
 밤중이면 붉은 빛 하늘까지 비치네.  
 怒勢快倒三峽流  
 성난 기세 삼협의 강물을 쾌하게 넘어뜨  
 려  
 刺船直泝誰能覆  
 배 저어 바로 거슬러 오르니 누가 능히 뒤  
 집으리.  
 彭鏗不敢誇大樁  
 팽깁도 감히 대椿을 자랑할 수 없어  
 河伯望洋羞海若  
 바다를 바라보는 하백도 해약이 부끄러  
 워

憑陵造化撼機軸  
 조화를 무시하고 기축을 뒤흔드니  
 有時懸知真宰泣  
 때로는 진재가 눈물을 흘릴 걸세.  
 千金之子天子宰  
 천금을 가진 천자도 재상도  
 抵死求之猶不得  
 죽도록 찾아도 얻지 못했네.  
 何君一朝得有餘  
 어떻게 그대는 하루아침에 얻어 남음이  
 있는지.  
 以下省略

채중길이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쓴 작  
 품에 차운한 七言古詩인 <차채중길문계시  
 운次蔡仲吉聞鷄詩韻>이란 작품이다. 제2구  
 의 ‘재를齋慄’은 齋栗과 같은 말로 공근恭謹  
 하고 계구戒懼한 모습을 뜻한다. 제3구의  
 ‘조차造次’란 조차지간造次之間의 준말로,  
 얼마 되지 않은 짧은 동안을 말한다. 『논  
 어』, 「이인」, “군자는 밥 한 그릇을 먹는  
 짧은 시간도 인仁에서 떠남이 없으니 잠  
 깐이라도 반드시 인에 마음을 두어야 한  
 다.”<sup>24)</sup>라고 했다. 제7구의 ‘현전眩轉’은 사  
 람의 눈을 어지럽게 한다는 말로, 정약용  
 丁若鏞의 <차운열수단오일기견次韻洌水端午  
 日見寄> 8수 중 마지막 수에, “모든 일들이  
 가히 다시 경험할 것이 전혀 없어, 바람

24) 『論語』, 「里仁」,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은 어지러이 굴러 흐르는 세월을 희롱하네.”<sup>25)</sup>라고 했다.

제9구의 ‘웅변熊躡’과 ‘표태豹胎’는 곰의 발바닥과 표범의 태란 말로, 진기한 식품을 뜻한다. 제10구의 ‘여갱藜羹’은 명아주의 잎을 넣어 끓인 국으로,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비유한 말이다. 『채근담』에, “입맛이 있으면 명아주 국을 차린 밥이라도 인생의 산뜻한 참맛을 안다.”<sup>26)</sup>라고 했다. 12구의 ‘뇌락磊落’은 높이 쌓인 모양을 말한다. 제16구의 ‘탐천슬榻穿膝’은 오랫동안 한 자리를 뜨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제22구 ‘도비掉臂’는 팔을 흔들다는 말로, 팔을 크고 요란스레 흔들며 득의에 찬 모습을 뜻한다. 제27구 ‘팽갱彭鏗’은 팽조彭祖<sup>27)</sup>를 말한다. 이이李珣의 <파교청설瀟橋晴雪>에, “황혼에 흥취는 다하지 못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팽갱을 살피리라.”<sup>28)</sup>라고 했다. 대춘大椿은 莊子장자에 등장하는 나무로 장수長壽를 비유한다. 『장자』, 『내편』, 『소요유』에, “상고 시대에 대춘이란 나무가 있어, 8천 년을 봄으로 삼고, 천 년을 가을로 삼았다.”<sup>29)</sup>라

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제29구 ‘하백망양수해약河伯望洋羞海若’은 『장자』, 『추수』편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하백과 북해의 신인 약과의 문답이다. 황하의 신인 하백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와, 북해까지 가서 동해를 바라보면서, 그 끝이 없는 넓음에 놀라서 북해의 신인 약에게 말했다. 그러자 북해의 신인 약이 이렇게 말했다.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며,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식견이 좁은 사람에게는 도를 말해도 알지 못하거니와, 그것은 그들이 상식의 가르침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좁은 개울에서 나와 큰 바다를 바라보고, 자기의 추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 큰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라고 했다. 장자는 이 문답을 통해 도의 높고 크고 귀천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대소귀천의 구별을 잊고서 도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 제29구

25) 丁若鏞, <次韻涑水端午日見寄> 其八, “萬事全無可更嘗, 風輪眩轉玩流光.”

26) 『菜根潭後集』, “藜羹飯後, 識人生澹泊之真.”

27) 彭鏗은 요 임금의 신하로, 성은 錢이고, 이름은 鏗이다. 8백 세를 살았다고 한다.

28) 李珣, 『栗谷先生全書』 卷一「詩」上, “黃昏興不盡, 歸路踏彭鏗.”

29) 『莊子』, 『內篇』, 『逍遙遊』,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

30) 『莊子』, 『內篇』, 『秋水』, “井蛙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 夏蟲不可以語於冰者, 篤於時也. 曲士不可以語於道者, 束於教也. 今爾出於崖, 觀於大海, 乃知爾醜, 爾將可與語大理矣.”

‘빙릉憑陵’은 세력을 믿고 침범한다는 뜻이다.

#### 4. 결언

이상에서 하서와 채중길의 교유 양상에 대해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서는 1600여 수에 이르는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와 교유한 인물들에 관한 것이다. 하서는 동문 수학한 인물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드러냈는데, 특히 신재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인물인 미암과 채중길과 윤사울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하서와 미암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사돈 관계로까지 발전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으나, 윤사울과 채중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윤사울은 요절했기 때문으로 보이나, 채중길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채중길은 하서에게 자신의 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거나, 자신을 위한 시를 부탁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하서 또한 채중길을 내 벗이라 칭하며, 그의 학문과 문장이 뛰어남을 찬양했다. 그러나 채중길이 남긴 시는 한 편도 전하지 않아, 하서가 그에게 준 시 7편만을 기초로 그의 생애를 추정할 뿐이다.

채중길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채중길은 본관이 인천으로, 본명은 무희이며 자는 중길이다. 조정에서 요직을 수행한 채소권의 당질이다. 박상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해 온 채소권의 소개로, 당시 충주목사로 있었던 박상에게 처음으로 문장을 배웠다. 이후 박상과의 인연으로 호남의 인물들과 교유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채중길은 본관이 고성으로 본명은 연희이며, 자는 중길이고 호는 대산이다. 채담이란 분의 다섯째 아들로, 1514년에 태어나 1588년에 세상을 떠났다. 박상에게 수학하여 1525년 식연시式年試에 생원生員 3등으로 합격했으나, 남곤과 불화하여 동북에 살게 되었다.

어쨌든 채중길이 신재 문하에서 하서, 미암, 윤사울과 함께 수학한 것은 분명하다. 하서가 신재의 문하에 들어간 해가 1527년임을 고려하면, 채중길이 신재 문하에서 수학한 시기는 1527년 이후로 추정된다.

하서는 <기증채상사중길>란 작품에서 채중길을 상사라고 호칭하고 있다. 채중길은 분명 진사에는 합격했으나, 대과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곤이 인정할 만큼 남다른 능력을 지녔으나, 그와의 갈등으로 관직으로의 꿈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도교에 빠져 입산하여 수행에 힘쓰며 세상과 등지고 살았기에

생물 연대조차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채증길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와 기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영진,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國譯河西全集』(上, 中, 下),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7.  
 기세춘, 『성리학개론』(上, 下), 바이북스, 2007.  
 김학주, 『신역 송시선』, 명문당, 2003.  
 조기영, 『河西金麟厚의 詩文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주희 여조점 편저, 엽채 집해, 이광호 역주, 『근사록 집해』(1, 2), 아카넷, 2004.  
 진래 지음, 이종란 외 2명 옮김,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Ⅱ』, 아세아문화사, 1995.  
 『河西金麟厚의 思想과 文學』(第 1, 2, 3, 4輯), 재단법인 하서학술재단, 2006-2010.

## 2023년 추향제 성금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500,000
김상백	울산김씨문정공 도유사	200,000
김진산	필암서원부도유사	100,000
양태호	담양 소쇄원	100,000
김성수	전 도유사	100,000
김문수	황룡면 필암리584-1	200,000
변세설	봉암서원 별유사	100,000
박래호	성균관유도회 장성지회장	100,000
김영풍	장성향교 전교	100,000
양남근	담양 수북농협장	200,000
봉대천	만곡사 별유사	50,000
김갑배	울산김씨 광양종친회장	100,000
김형소	울산김씨 각계공파 원로종친	200,000
노형욱	초헌관	300,000
정철환	예총 장성지회장	100,000
김양수	전 장성군수	100,000
김병윤	장성을 봉암로30-46	100,000
양정태	광주 동구 구성로187-2 대성bd502	100,000
김재승	광주 북구 두암동	100,000
홍기관	광주 북구 천담연신로133번길 7 호반 209-1301(고산서원)	100,000
반강진	대한노인회 장성지회	50,000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장	100,000
김경수	울산김씨 장산문중	100,000
김관중	울산김씨 장파도유사	100,000
고광현	장성축협장	100,000
심대설	양계사 도유사	50,000
유기중	송계서원 도유사	50,000
김상엽	울산김씨 대종회장	200,000
김상준	울산김씨 대종회부회장	50,000
김종권	양산동	50,000
김재훈	순창군 복흥면 식생원	100,000
문정희		100,000
산양회		500,000
<b>합계</b>	<b>4,500,000</b>	

# 간디와 인촌 김성수

신광조(인촌사랑방 대표)

위대한 영혼, 간디

예수와 석가가 성인이라면 간디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분으로 부르고 싶다.

간디는 1869년생, 인촌은 1891년생이니, 22년 연상 아재별이다.

간디의 일생이 주제가 아니니, 요즘 자주 들여다보는 간디의 세상 진단 하나만 소개한다.

간디는 나라가 망할 때, 어느 국가에서나 나타나는 일곱 가지 나쁜 사회현상, 세상을 쪼먹는 7적을 20세기 초 말했다.

원칙 없고 정권쟁취에만 몰두하는 정치.

일하지 않고 떨어지는 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도덕심 없이 쾌락에만 탐닉하는 것.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지 않는 교육.

도덕심 없는 정글의 자본주의.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과학.

이타심 없는 종교.

섬뜩하다. 우리나라도 늘 아슬아슬하다.

간디의 수많은 명언 중 늘 우리가 가까이 두고 새겨야 할 말도 많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은 오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법이다.”

“눈에는 눈 식의 보복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의 눈이 멀게 된다.”

“남들이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단순하게 살라.”

간디는 위대한 영혼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자신의 나라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과도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을 세밀히 썼다. 영국에서 중고교시절을 보내고 영국군을 지원

하였지만, 언제나 영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다.

원칙을 세우고 자주독립 자치권 획득을 단계별로 하나씩 얻어나갔다.

단 하나도, 자신을 위한 욕심도 없이 조국 인도를 위해 성자의 삶을 살았던 그도 이념 종교 대립갈등의 제물이 됐다. 간디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간 싸움, 훗날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골육상쟁의 내란에서 극우파 힌두교도에 의해 세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

간디가 내 가슴을 때린 수많은 말 중, 비를 맞으며 생각했던 구절도 많다.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세상에는 배가 너무 고파, 신이 빵의 모습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 간디와 인촌의 교류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위대한 사람 들끼리는 서로 통한다.

먼 나라이지만 마틴 루터 킹 2세는 간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불복종 비저항 운동은 간디의 외침과 실천을 따온 것이다.

1926년, 인촌은 인도의 반영운동 지도자로서 나라를 위해 가끔은 격렬하게 대부분은 실익쟁취 협력노선을 걷던 간디에게 서신을 보냈다. 항일투쟁의 지혜와 힌트를 얻고자 간청한 것으로 보인다.

간디도 같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극진히 애뜻하게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민족지도자에게 답신한 편지가 동아일보사 사장 김 성수 앞으로 도착했다.

“사랑하는 친구여! 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내가 보낼 유일한 부탁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무저항적인 수단으로 조선이 조선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1926년 11월 26일 M. K. 간디”

이처럼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위대한 영혼) 간디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서 인촌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의 격려성 메시지.

그러니까 조선민족은 결코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말라는 뜻을 동아일보를 통하여 우리 전 민족에게 전해준 것이다.

간디는 영국과는 불가근불가원 원칙으로 접근했다. 비폭력 무저항 노선을 취했다.

인촌은 간디의 영향으로 무저항적인 수단을 택해, 조선인이 되기를 상약한 것 같다.

인촌은 국내에서 세계적인 약소국의 지도자인 간디와의 교류를 통해서 일제 통치하의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일제에 저항할 모책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촌은 일제하에서 언론활동을 통하여 간디 등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독립과 인권신장을 위한 살신성인의 지혜를 깨달았다.

인촌이 전투와 대결보다는 생산하고 창조하며 건설하여 타협 대화하면서 구국을 위해 일본을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이성에 호소하여 일본에게서 얻을 것은 얻고 있다가 우리 힘이 생기면 일본을 완전히 추방하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이미 무력으로는 국내외에서 침략군을 격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

다.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닐지라도, 일제 침략 하에서 한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로 여겨졌다.

후원자이며, 협력자, 조력자로서의 인촌의 성격상 다른 방도는 그에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삼 십리 떨어진 인촌리의 강과 같은, 물 같은 덕성의 인촌이기에, 공산당의 거세대상 1번이었음은 물론, 해방직후같은 혼란과 야망의 시대에서도 3년여 기간이나 그를 살해하려 했던 가공할 음모를 용케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인촌은 해방 전후 9번이나 암살 위협에서 빚겨갔다. 인촌을 살린 것은 덕이었을까, 운이었을까?

## 2023년 춘향제 성금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김문수	황룡면 필암584-1(학전파)	200,000	김재승	광주(신평파)	100,000
양성모	황룡면 중동(제관)	100,000	김경수	계파장산중중도유사	100,000
허태록	곡성 영귀서원	100,000	김용하	광주(종파)	100,000
김진산	부도유사	100,000	축협장		100,000
박정래	삼계면	50,000	산림조합장		100,000
김성수	장성읍 (전도유사)	200,000	김관중	장파 도유사	100,000
김상준	서울 대종회 상근부회장	50,000	정철환	장상예총회장	100,000
이종창	죽림서원	50,000	양정태	장성문화원 고문	100,000
김병윤	장성읍 봉암로30-46(화산공)	100,000	김상국	대종회 사무국장	50,000
변세섭	봉암서원	100,000	김재수	산앙회장	100,000
양태호	소쇄원	300,000	김재훈	순창 복흥면 식생원	100,000
김양수	전 장성군수	100,000	양재혁	소쇄원 종손	100,000
김상엽	울산김씨대종회	300,000	서원관리단	서울	500,000
조병철	성균관 청년유도회 지회장	100,000	심대섭	양계사	50,000
김영길	서울대종회 자문위원(각제공)	100,000	김인수	광주, 전도유사	200,000
박길섭	수산사	50,000	이성규	김해시 덕정로(집례)	100,000
김재상	북이면 달성리(신평파)	100,000	배석오	무안군 청계면 남리리	100,000
문정희		100,000	선상규	보성군 오층서원(아현관)	300,000
유재식	송계서원	50,000	이흥규	김해시 장유로	50,000
김주환	함평향교	100,000	김상백	도유사	300,000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장	100,000	산앙회		500,000
<b>합계</b>					5,700,000

## 필암서원 추향제 봉행하다

— 초헌관에 노형욱 전장관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고암 양자징을 기리는 필암서원 추향제를 지난 10월 26일 봉행하였다.

이번 추향제에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상엽 울산김씨대종회장, 김상백 문정공대중증도유사, 박래호 필암서원 수석집강, 이종영 부산유림원로, 김수영 충청유림원로, 류공승 영광향교전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초헌관을 맡은 노 전장관은 제향을 마친 뒤 청절당에서 ‘하서의 사상과 철학’을 주제로 강론했다. 그는 “하서 선생은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두루 갖춘 호남의 큰 선비”라며 “정치와 윤리가 실종된 요즘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익히며, 학식과 인품을 갖춘 진정한 선비를 키우고자 했던 하서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추향제가 끝난 뒤에는 ‘제21회 하서 추모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 대회에서 ‘장성의 대표 인물 하서 김인후 선생’을 주제로 글을 쓴 김정혜 양(삼서초 5학년)이 으뜸상을 받았다.

## 장성 필암서원에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국학무대

— 라비던스 소리꾼 고영열, 전통음악합주단 선봉,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에서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흥겨운 우리 가락 무대가 열렸다.

장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문화재청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필암서원에서 ‘명품 국악공연’을 열기로 했다.

올해의 공연 주제는 ‘세계유산 필암서원, 호남의 선비 하서 김인후 선생을 만나다’이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서원 앞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 9월 16일(토)에는 TV 예능경연 팬텀싱어 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라비던스’의 소리꾼 고영열이 공연했다.

10월 21일(토)에는 전통음악 합주단 ‘선풍’이, 11월 18일(토)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공연하였다.

공연이 열리는 주의 금, 토요일에는 인종이 스승인 하서 선생에게 하사한 ‘세 가지 선물’을 주제로, 수묵화 그리기 등 가족 관람객을 위한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필암서원에서 펼쳐지는 명품 국악공연과 체험행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꾸준히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세계유산 가치 활용방안 제시**

- (사)지방활력연대 주최 학술포럼

지방활력연대(이사장 김영미 동신대 교수)는 10월 31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필암서원 활성화 방안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김영미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하서 김인후 선생의 행적과 가르침에 걸맞게 모든 것을 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자발적 노력을 보태야 한다.”고 논의의 물꼬를 텄다.

‘세계유산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첫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재 한국서원통합관리센터 실장은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의 삶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인정된 필암서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비문화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고재인 장성군 문화관광과장은 “필암서원을 통해 장성이 호남 선비문화의 수도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선비문화 육성사업 이외에도 지속적인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예로 제향 참여 확대, 선비학당 운영 시기 조정, 서원스태이 프로그램 운영, 하서 선생 관련 탐방로개설, 장성과 인접한 담양을 묶어 호남 선비문화권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병기 전 전남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 김성수 전 도유사, 김동하 전 서영대 교수, 김채림 전남문화관광해설사 협회장이 토론했다.

김채림 해설사 협회장은 다년간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애로 사항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23년 하반기 본회 이사회 열다**

지난 9월 9일 개마고원식당에서 본회 23년 하반기 이사회가 열렸다. 일본에 유학 중이신 김봉곤이사는 인감도장만 보내고, 안동교 이사가 처음 참석하였다. 작고하신 김장수 이사만 불참하고 모두 참석하였다.

김재수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충원 총무가 경과보고를 하였다. 신임 김상백 문정공 도유사를 소개하고 인사말을 들었다. 김진산 별유사 겸 부도유사도 인사말을 했다.

안건으로는 임기만료 이사와 감사의 재추대와 보임을 논의하여, 임기 만료된 김

재수 이충원 김양수 김봉곤 이사와 고달 석 감사는 재추대하고, 수원에 사시는 김 세곤 이사, 서울로 이사 가시는 김승규감 사는 사임했다. 새 이사에 김병기 전 전남 대교수, 새 감사에 맥동에 사는 김병순씨 를 추대하였다.

23년 하반기 강연회 개최를 논의하여, 10월 하순경 광주향교에서 열 계획이며, 초청강사로는 전남대 김대현교수, 전 서 영대 김동하교수를 초청하기로 했다.

이어서 하서 도학과 문학 제39호 발간 에 대해 논의하고 이사회를 마쳤다.

**장성유도회, 필암서원 유림 80명  
동춘당 송준길 선생을 모신  
경북 상주 흥암서원 알묘**

희보잠광懷寶潛光, 보물을 품고도 빛을 감추었다는 뜻.

이 사자성어는 1716년 숙종대왕의 어명 을 받들어 좌부승지 유송龠崇이 쓴 동춘당 선생 사제문賜祭文에서 인용하였으니 그 사제문의 내용을 적어본다.

『하늘이 유림儒林을 돌보셔서 참된 선비 를 태어나게 하셨네, 맑고도 온화하여 금 옥같이 맑은 성품으로 일찍이 도학에 뜻 을 두어 덕화를 길러 마음이 순수하였네. 서로 도와 인덕仁德을 닦은 사람 누구인 고, 두 분의 대현大賢이 나란히 솟아 함께 스승의 가르침 받아 거슬러 학문의 근원

을 찾고 서로 도와 덕화를 닦아서 바르고 정성스레 실천하여 온화하고 순량한 쌓인 덕이 그 광채 외부에 나타났으니 그 모습 어떻게 설명을 할까, 봄바람에 맑게 개인 하늘에 달과도 같네, 때마침 정묘·병자의 호란을 만나 질서가 혼란하니 더욱 깊이 몸을 숨기고, 날마다 도덕 의리를 강론하 면서 보물을 품고도 빛을 감추어 출사出仕 하고 물러남을 때에 맞게 하였네…… 이 하는 줄이다.

우리나라 학문은 서인西人으로 부른 기 호학과와 남인南人으로 부른 영남학파로 나뉘어 양대 학파를 이루고 있다. 영남학 파의 거센 바람이 가득 불고 있는 경상도 상주 고을에 기호학파의 큰 별빛 같은 동 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선생을 단독으로 모신 흥암서원 묘우興巖書院 廟宇가 근엄하 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선생의 서원이 상주에 세워지게 된 연유가 있다

선생께서 총각시절에 사계 김선생에게 공부를 할 제 경상도 서애 유성용의 제자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선생은 위대한 성 리학자로 학문과 사상이 김사계와 같았 다. 그리하여 우복께서 어느 날 사계를 찾 아와 사위감을 소계해달라고 하자 송우암 송동춘당 이초려 세 사람이운데 선택하라 고 하자 동춘당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인 연으로 선생은 우복의 사위가 되었고 그 곳에서 장인을 위해 활동을 하면서 제자 도 양성하였다는 것이고 그 인연으로 그

곳 제자들이 서원을 세운 것이다. 이 사실을 미루어볼 때 홍암서원은 기호와 영남 유림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소중하기만 하다

선생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문하에서 우암 송시열 초려 이유태와 함께 큰 학문을 이루어 삼룡三龍으로 칭송되었으며, 율곡 선생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노론을 대표하는 위대한 스승이다. 선생은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세마洗馬 벼슬에 제수된 이후 효종이 등극할 때까지 동몽교관 한성부 판관 등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취임하지 않고 학업을 닦았다. 그 뒤 김장생 선생의 아들 신독재선생이 이조판서로 등용되면서 우암과 함께 발탁되어 집의執義에 올랐고 품계는 통정대부에 올랐다. 인조임금 말기에는 권력을 장악한 김자점, 원두표등 반정공신 일파를 탄핵하여 몰락시키는가하면 효종을 모시고 우암과 함께 북벌의 중심에 서서 송명반청崇明反淸의 정신을 가졌으며, 선양민후양병론先養民後養兵論을 주장하였고, 군주가 모든 정치를 현명한 신하에게 위임한다는 현신위임론賢臣委任論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자점이 효종 임금의 반청反淸정책을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효종의 북벌계획이 좌절됨에 따라 벼슬에서 물러났다.

죽은 뒤 영의정에 추종되었으나 이듬해 인선대비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복상문제가 일어나 남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허

적許積등의 공격으로 관직이 삭탈되었다가 1680년에 복구되었다. 시호로 문정공이 내려지고 이 해에 김장생과 함께 문묘에 종사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윤택되지 않았으며, 그 뒤 1756년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기호학맥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장성유도회는 지난 12일 남녀회원 80여 명이 선현先賢 유적지 답사지역으로 홍암서원을 방문, 삼헌三獻 알묘예로 존경의 도리를 한층 더 높였다. 김종식 원장을 비롯한 유림들의 지극한 환영과 환송의 모습은 많은 감동을 주었다. 홍암서원 알묘 고유문을 실어 마무리해 본다.

「홍암서원 알묘 고유문, 아~~~ 공자 기원 2574년 계묘 9월 12일, 후학 장성유도회장 박래호, 필암서원도유사 김상백은 감히 문정공 동춘당 선생께 분명하게 아뢰나이다. 하늘은 우리 도학道學이 걱정되어 선생을 순수하게 보내셨습니다. 봄바람에 단비였으며 상서로운 밤하늘에 경사스런 별빛이었지요.

사계 선생께 감복하였으며 하서 선생을 태산처럼 우러렀구려, 청절당과 진덕재와 송의재의 판액 이 글씨 누가 썼을까 선생님의 필력이지요. 아~ 정책은 국가의 시구蓄龜였으며 높다란 도학은 선비들의 규구規矩였기에 서원이 경북에 높이 세워졌으며 홍암이라 사액賜額되었지요. 선생 한분만 모셨으니 그 도덕 진실로 높았습니다. 장성에서 천리 길 달려와 술과 육

포 간소하게 갖추고 삼가 아뢰며 삼가 아  
되나이다.」

### 가난해도 공부 접지 않도록 장학사업 펼친 선비

－ 필암서원 집강 박래호(朴來鎬)

노강(蘆江) 박래호 선생은 2010년부터 장  
학 사업을 이어온 것은 부친이 작고한 지  
한 달 만에 평생을 함께 한 아내마저 하늘  
로 떠났는데, 유년 시절부터 한학자의 길  
을 걸어온 남편을 대신해 살아느질로 품  
삿 일로 3남 1녀를 전부 대학까지 보낸 미  
안하고 고마운 아내였다. 마음이 맑아서  
청심당(淸心堂)이라는 호까지 지어줬던 아  
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정신이라도 남  
기고자 노강 선생은 문중을 위한 장학회  
를 세웠다는 것이다.

장학기금은 아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 모  
은 저축금에 부의금을 보태 2억 원으로 시  
작했다.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서 지은 ‘호경장학회’는 매년 2명 이상 서  
울과 광주에서 추천받아 선발했다. 장학  
금은 일가친척과 그 이웃 가운데 어려움  
을 겪는 중 고 대학생에게 고루 돌아갔다.

노강 선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균  
관 유도회 장성군지부회장 자격으로 장  
성군에도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 500만  
원을 전해왔다. 이러한 나눔에는 선비정  
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서 “나의 자손들아, 힘쓰고 힘쓸지어다!”  
라며 호경장학회를 잘 길러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김상덕회원, 민족통일협의회 대회 대 통령 표창

김상덕 민족통일광주시협의회 회장이  
19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  
통 창설 42주년 기념 2023 민족통일협의  
회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취임한 김 회장은 와해됐  
던 구 단위 협의회를 재건하고 광주시 단  
체협의회 창설, 청년위원회 구성 등 조직  
을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매년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5~20회씩 평화통일 교  
육을 실시하고, 통일기원 산사음악회와  
송년음악회 등을 개최, 많은 사람들이 통  
일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민족통일협의회 4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의 역사를 담은 380쪽에 달하는 『염  
원』이라는 책도 발간하였다.

김 회장은 세계조각 장식박물관과 진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발전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국제라이온스클럽, 대  
한민국 경우회, 자연보호 중앙연맹 등 활  
동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 중용 26장 지성무식 至誠無息

그러므로 지성至誠은 쉬이 없다. 쉬이 없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징험이 드러난다. 징험이 드러나면 유원悠遠하고, 유원하면 박후博厚하고, 박후하면 고명高明하다. 박후하기 때문에 만물을 실을 수 있고, 고명하기 때문에 만물을 덮을 수 있고, 유구하기 때문에 만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박후는 땅과 짝하고, 고명은 하늘과 짝하고, 유구는 시공의 제약성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자는 내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며, 움직이지 않아도 세계를 변화시키며, 하지 않아도 만물을 성취시켜 준다.

천지의 도道는 한마디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물됨이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즉 그것이 물物을 생성함이 무궁하여 다 헤아릴 길 없는 것이다.

아! 천지의 도道이시여! 드넓도다! 두텁도다! 드높도다! 밝도다! 아득하도다! 오래도다!

故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博厚, 所以載物也; 高明, 所以覆物也; 悠久, 所以成物也.

博厚配地, 高明配天, 悠久無疆. 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 天地之道, 可一言而盡也; 其爲物不貳, 則其生物不測.

天地之道; 博也, 高也, 明也, 悠也, 久也.

- 도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308~309쪽에서 가져옴

# 축

### 하서선생추모 춘향 화환

1. 하서학술재단 이사장 김병휘
2. 동아일보사 회장 김재호
3. 울산김씨대종회장 김상엽
4. 울산김씨문정공대종중도유사 김상백
5. 울산김씨광주종친회장 김경수
6. 울산김씨장성종친회장 김재완
7. 장성문화원장 김봉수
8. 성균관유도회전남본부회장 문영수
9.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10. 울산김씨장성청년회장 김형중
11. 장성화원 김태균
12. 필암서원 산양회장 김재수
13. 밀등회장 김양수
14. 담양종친회장 김상식
15. 장성향교 전교 김영풍

### 하서선생추모 추향 화환

1.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
2. 하서학술회 김병휘 이사장
3. 울산김씨 김상엽 대종회장
4. 성균관유도회 전남본부장 문영수
5. 장성문화원 김봉수 원장
6. 벽진서원 윤장현 원장
7. 울산김씨 장성청년회 김형중 회장
8. 울산김씨 각재공종중
9. 울산김씨 공직자회
10. 장성화원 김태균
11. 제주양씨 소쇄원종중회장 양태호
12. 울산김씨 밀등회장 김양수
13. 울산김씨 광주종친회장 김경수